

코로나 확진 학생 5일 결석해도 출석 인정

내달부터 개정 방역 지침 적용 7일 격리 해제...등교중지 권고 자가진단 앱 사용도 중단키로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5일 동안 등교 중지를 권고받고, 결석한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코로나19로부터 학교를 지키기 위해 도입된 자가 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 지침'이 학교에 적용된다고 29일 밝혔다.

중양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없애는 등 방역 조치를 전환하고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로 하향하기로 한 데 따라 지침을 개정한 것이다.

바뀐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학생들에 대해서는 7일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확진 학생들은 5일간 격리와 등교 중지를 권고받는다.

교육부는 확진 학생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등교를 중지한 기간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확진 학생이 교내 시험에 응시하려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다른 학생·교직원과 접촉을

최소화해 등교할 수 있다. 학교는 분리 고사실을 마련해 확진 학생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도입된 자가 진단 앱 사용은 다음 달 1일부터 중단된다.

유행이 시작된 2020년 1학기 학생들은 17개 시·도 교육청별로 개설된 자가 진단 웹페이지에서 자가 진단을 해오다가 2020년 2학기부터 교육부가 개발한 자가 진단 앱을 사용하듯 매일 아침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확인해왔다.

유행이 점차 잦아들면서 지금은 감염 위험이 있는 학생·교직원만 자가 진단 앱 참여를 권고 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자가 진단 앱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가정학습에 대해서 교육부는 여전

히 교외 체험학습 사유로 보고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5월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 이상일 경우 학부모들이 감염 우려로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 학습시키는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해왔다.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지된다. 의심 증상이 있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지속되는 상황인 만큼 수업 중환기, 일시적 관찰실 운영 등 기본 방역체계를 당분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광주시, 중동시장 공략 성과 두바이 등서 120만달러 수출

광주시가 중동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와 함께 지난 26일까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시장개척단을 파견, 수출실적 13만달러(1억7,000만원), 수출협약 120만달러(16억원), 수출상담 1,000만달러(134억원)의 성과를 거뒀다.

이번 시장개척단은 현지 바이어(구매자)와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중동시장 진출 네트워크를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시장개척단은 지난 23일-24일 이틀간 두바이 메트로폴리탄 호텔과 아부다비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각각 '2023 광주시-중동 수출상담회'를 열고, 총 144건 상담, 상담금액 1,000만달러 규모의 성과를 냈다.

수출상담회에는 중동 바이어 35개사와 건강관리·식품·화장품 등 광주 주력 업종별 중소기업 10개사 등 총 45개사 70여명이 참석했으며, 시장개척단은 상담회 이후에도 개별 미팅을 진행하며 수출·투자 네트워크 구축에 힘썼다.

수출상담회에서 환자용 수액 주입기 제조기업인 '신성테크'는 UAE·이란 등지 바이어들과 13만달러 규모 수출실적을 올렸다.

자동차장충격기 제조기업인 '나눔테크'와 성형주사기를 제조하는 '에스비메드',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 '브레인포커스'는 중동 바이어들과 총 120만달러 규모 수출협약을 맺었다.

아울러 시장개척단은 한국무역협회 두바이 지방장을 비롯한 현지 전문가 초청 설명회를 통해 현지 시장 동향 등에 대해 배우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또 지역 기업의 중동시장 수출력 강화를 위해 두바이 공방·프러존(DAFZA)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 등을 방문하고, 유관기관 초청 간담회, 현지 산업 시장조사 등의 일정을 진행했다.

이계두 광주시 투자산단과장은 "이번 시장개척단 파견을 통해 관내 유망 중소기업의 중동시장 진입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현지 시장의 수출 위험 요인과 어려움을 파악해 광주 기업이 안정적인 판로개척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추진 위메프와 '용기낸 매장' 모집

광주시는 29일 "1회용 배달용기를 줄이기 위해 광주공공배달앱인 위메프와 협업해 '용기낸 매장'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용기낸 매장'은 매장의 다회용기로 음식 배달 후 수거하는 '다회용배달용기 사용 매장'이거나 개인용기에 식음료 등을 포장해 주는 '내용기 포장 가능 매장'을 지칭한다. 대상은 일반 음식점(한식, 중식, 양식 등), 휴게음식점(커피, 분식, 샐러드, 도시락, 패스트푸드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반찬, 떡 등) 등이다.

광주시는 용기낸 매장 100곳 이상이 모집되면, 매장 이용 후기 인증자에게 주문금액의 10%, 최대 3,000점(3000원)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모집 기간은 6월 말까지다. 신청은 온라인 설문 접속(URL) 또는 QR코드로 접속하거나 광주시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전자우편(sy1220@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용현 기자



장로습지 지역활성화 모색
광주시의회는 지난 26일 오후 광산구 이야기꽃도서관에서 '탄소중립과 장로습지, 지역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갖고 장로습지 복원, 수질개선 및 시민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모색했다. /광주시의회 제공

시, 우기 대비 건설공사장 점검

광주시는 우기 대비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역 건설공사장 15곳에 대해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붕괴 및 침수 등으로 인한 갑천·익사 및 강풍에 의한 시설물 낙하·전도 등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는 건설공사장이다. 광주시는 내실 있는 점검을 위해 자치구, 국토안전관리원, 민간전문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한다.

점검사항은 ▲안전대책 여부 및 수방장비 확보, 관리 실태 ▲붕괴 및 추락위험 요인 점검 ▲배수로 정비 및 비닐 막 설치 등 대책 강구 여부 ▲안전 관리계획서 적정 및 정기안전점검 실시 여부 등이다. /김용현 기자

"6월 2일 유기농데이" ...체험·홍보 풍성

무안 남악공원에서 기념행사 인식확산·소비촉진 도모

"6월 2일 유기농데이 행사장에서 다양한 체험도 즐기고 친환경농산물 구입하세요"

전남도는 29일 "오는 6월 2일 무안군 남악 중앙공원에서 친환경 유기농업의 국민적 인식 확산과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2023 유기농데이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기농데이 기념행사는 (사)전남친환경농업협회와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공동 주최한다.

'지구를 지키는 건강한 한입'을 주제로 기념식, 초대가수 공연, 퀴즈대회, 노래자랑, 보물찾기, 유기농 쌀 떡메치기, 유기농 군고구마 나눔, 청소년 춤 경연대회 등이 풍성하게 열린다.

반려식물 키우기, 식생활 교육 홍보관 등 전시·홍보도 진행한다. 친환경농업협회·한살림협회·아이쿱생협·지옴·소비자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10여개 소비자 단체는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해 신선한 유기농 식품을 알뜰하게 구매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들 단체는 유기농업 홍보를 위해 직거래장터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5,000원 할인쿠폰 4,000매 상당을 사전 배포할 예정이다.

유덕구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K-유기농을 선도하는 친환경 전남의 위상과 맞는 유기농데이 기념일을 적극 홍보해 친환경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농업인과 소비자와의 유대관계를 촘촘히 잇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를 주최하는 (사)전남친환경농업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친환경농업단체가 친환경농산물 자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2015년 중앙단위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설립됐다. 친환경농산물자조금 관리위원회와 함께 정책·제도 개선, 친환경 농업교육·홍보, 자조금 사업활동 등 친환경농업 육성 및 소비촉진 사업을 펼치고 있다. /정근산 기자

시·도, 군공항 특별법 시행령 압축

전남도는 특히 국방부장관이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기로 규정돼 있으나 국방부가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을 시장·군수로 한정하는 법령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광역자치단체장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전 주변 지역에 대한 의무적 지원사업으로는 이주·생활 대책, 생계지원, 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별도 손실보상과 지원대책, 광주·전남 주요 도시로부터 군 공항까지 이르는 도로·철도·항만 시설 등 교통망 확충, 군공항과 연계된 이주단지 등 신도시와 배후 산업단지 기반 시설 건설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게 전남도의 주장이다.

전매 광고 안내

전남매일 광고는 전화 및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모집·매매·부동산·공고·영입·분양·모임

· 광고국 062) 720-1016, 1017
· 팩스 062) 720-1020
· 이메일 jnm1000@hanmail.net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자아 실현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정품 화환 75,000원 재사용 화환 50,000원

Tel. 062) 233-9961 Fax. 672-996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여러분의 취업성공, 활기찬 경제도시 남구가 함께합니다

남구 일자리박람회
607-2672

취업상담 및 알선
607-2675

남구 공공일자리
607-2673

남구 취업지원센터

전남매일

지방자치시대 동반자
분권시대 선도자

투고를 기다립니다
E-mail : jnreviews@daum.net

구독문의 062) 720-1006